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뉴스초점

J바이러스에 의한 조류 백혈병

병리해부학적 소견으로 진단

전 세계적으로 J바이러스로 인한 조류 백혈병 발생으로 육용종계 업계는 꽤 아닌 비상이 걸렸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종계의 생산성이 15% 이상 낮아진다는 소식과 함께 주로 닭의 골수에 이상을 나타내 생산성을 저하시켜 종란 부족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특정 품종이나, 특정 농장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일부 가검물에서 병리해부학적 소견으로 진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과거에 단순히 백혈병이 발생하여 고생을 한 농가들은 일단 J바이러스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위생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닭고기 수입 증가

11월말 현재 9,489톤 수입

환율상승으로 닭고기 수입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1998년의 닭고기 수입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자 수입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입 품목은 다리, 날개 순이었는데 다리의 경우 다리살이 주종을 이루어 이들 물량은 대개 가공용과 닭갈비 식당으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채의 경우 가격은 kg당 국내산이 4천~4천5백원, 수입산은 이 보다 5백원이 낮은 가격에 납품이 되는데 수입가격은 대개 3천원대 이하(환율 1,300원대)여서 수입마진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금년 사료원료 수입 차질 없을 듯

GSM-102자금 10억달러 제공키로

그동안 미국이 GSM-102자금 제공을 놓고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어 금년도 사료원료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었으나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금년도도 GSM-102자금 10억 달러 제공에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계란빵 등장으로 잔알소비 증가

겨울 방학으로 다소 소비줄듯

대학가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계란빵이 등장하여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IMF 이후 실직자들이 대거 노점상으로 몰리면서 과거 봉어빵, 바나나빵의 명맥을 이어 식사용으로 한단계 발전시킨 계란빵이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잔알을 사용하는데 생란을 깨뜨려 한 개씩 빵 속에 넣어 개당 500원에 행인들에게 판매하여 인기를 누리고 있어 당분간은 소비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나 잔알 생산이 가장 적은 시기와 맞물려 있어 계란빵에도 큰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 계약사육 비중 80% 이상

계열주체를 육계 유통에 판매

최근 병아리 구입이 어렵게 되자 그간 거래를 지속해 온 계열주체 위주로 병아리 공급이

유지되면서 계약사육 비율이 8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계열주체들은 생계를 유통쪽으로 판매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어 육계 유통에 변화가 일고 있다. 현재 거래조건은 대부분 현금결제이며, 병아리 공급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잔알 생산량 급감 속에

특란 소비는 감소세

연말연초 계란 소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지난해 외환위기의 여파로 초생추 입식이 감소하여 잔알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노계를 환우하여 이용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계란생산 추이가 왕·특란 위주로 변화되었지만 소비시장에서는 대란 이하가 상대적으로 유통량이 많아져 잔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특란은 소비가 부진하여 체화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육용 종계, 실용계가격 강세유지

생산량 적고, 수요늘어

육용 종계의 국내 생산업체가 계열주체를 포함 3개사로 지난 해에 재편이 되면서 사육량이 감소한 여파로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자 종계입식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종란 수요도 많아 수입이 어렵게 되면서 종계와 실용계 병아리 구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계**